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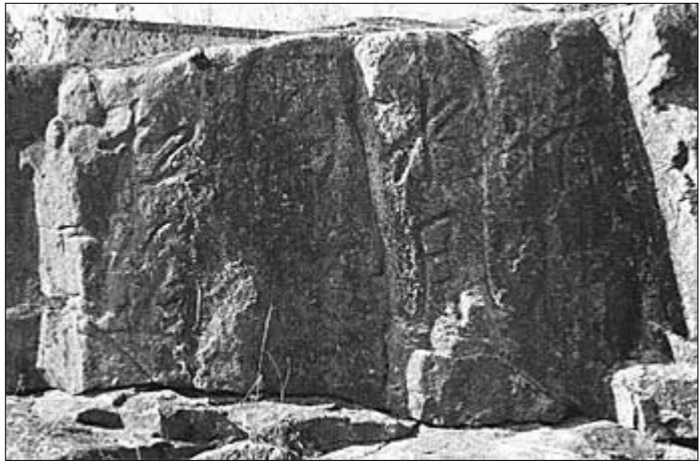
기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 창육병 암각문



최 중 규  
포천영외회 회장

- 지정번호: 포천시 향토유적 제 41호
- 명칭: 창육병 암각문
- 수량/보유종별: 9기
- 소유자(보유자): 이종훈
- 소재지: 창수면 주원리 687-1
- 지정년월일/고시년월일: '94. 5. 2
- 관리단체/관리무자: 이종훈

### 기암과 괴석으로 이루어진 한 폭의 병풍



포천시 창 수면 주원리 687-1에 위치한 창육병 암각문.

한마디로 기승이니 명승이니 해도 창육병의 아름다운 절경을 하지만 어떤 미사여구를 사용해도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한다.

창육병이란 글자가 말하듯이 기암과 괴석으로 이루어진 한 폭의 병풍을 연상하면 된다.

최근에 발견된 암각문(岩刻文) 입수점은 창육병의 품격을 한층 높이고 있다.

이 암각문은 사암 박순 선생이 쓰신 이양정기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는데 이름을 짓고 기록한 사람은 이양정주인이고 큰 글씨와 작은글씨를 쓴 사람은 주부 한호이며 그것을 11개 돌에 새긴다는 솜씨가 뛰어난 신이이다.

이해는 만력 16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지은이 글쓴이 새긴이가 소멸되었으며 만력 16년은 1588년(선조 21)이다.

### 세익스피어 에세이

## 용서할 수 없는 죄



박 정 근  
대전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요즈음 일간신문과 인터넷을 가득 채우는 사건은 단연코 김영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석공사건이다. 보수신문에서는 '석공테러'로 보고, 젊은 진보층에서는 '석공의거'라며 서로 대조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 교수는 성균관대 입시 수확문제 한 문항이 잘못되었다고 양심선언을 하였다. 이유는 동료교수들에게 소외되고 심지어 해임을 당하는 희생양이 되었다. 학지는 자신의 전공영역의 문제가 잘못되어서 일부 학생이 불이익을 당했다면 학자로서 당연히 시시비비를 가려서 정의가 바로 세계 해야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김 교수는 자신의 양심선언에 의해서 해임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법부에서 밝혀주기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사법부는 입시문제는 김 교수가 지적한대로 잘못되었지만 그의 교육자적 자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계가 옳다는 판결을 내렸다. 보통

“

양심은 바른데 일부 언행이 거친

교수에게 교육자 자질을 운운하는 것이

최고의 정의를 지켜주어야할

사법부 판사가 할 일인가. 그 정도로

판사들의 판단력이 흐리단 말인가.

”

사람들은 잘 남들이 가지 않는 역설적인 판결이다. 김 교수가 자신의 신분을 위협당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다수의 교수들과 학교당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양심선언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그의 교육자적 자질이 수준 이하라고 판결했다면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수확시험문제가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다수의 교수가 교육자적 자질이 있는가. 아니면 양심은 바른데 일부 언행이 거친 교수에게 교육자 자질을 운운하는 것이 최고의 정의를 지켜주어야할 사법부 판사가 할 일인가. 그 정도로 판사들의 판단력이 흐리단 말인가. 그래서 많은 네티즌들이 '석공의거'라고 들고 있어오고 있는 것이다.

세익스피어가 사람의 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햄릿』이다. 이 작품에서 죄의 원천은 햄릿의 삼촌인 클라우디우스이다. 그는 권력에 눈이 어두워 형인 햄릿왕을 독살하고 형수를 아내로 취한다. 성경에서 형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신이 용서할 수 없는 친족살해를 범했듯이 형을 죽인 것이다. 거기다가 기독교 십계명에 지적되었듯이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죄도 함께 범하여 이중의 큰 죄를 범하고 만 것이다.

햄릿은 아버지의 유령을 만나 자신이 죽게 된 자초지종을 들었지만 확증을 잡지 못해 복수를 지연하며 때만 기다리며 광인의 연기를 지속한다. 햄릿의 광증의 진위를 의심스러워하는 클라우디우스는 햄릿의 죽마고우인 로렌스 크랜즈와 길덴스텐을 불러들여 햄릿의 속마음을 떠보라고 사주한다. 심지어는 햄릿의 애인인 오피엘리어를 이용해서 그가 진짜 미쳤는지 아니면 미친 척 하는 것인지 알아보라고 채근한다. 클라우디우스는 자신의 권력에 대한 최대의 경쟁자이자 위협자인 햄릿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햄릿의 우정과 사랑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클라우디우스는 햄릿이 그의 죄의 진실을 향해서 조금씩 접근해오자 점점 불안해진다. 권력과 색정이 눈을 가려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던 그가 불안해지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햄릿을 아예 죽일 수 있는 방도를 찾는다.

햄릿을 영국으로 보내어 영국왕으로 하여금 죽이도록 하는 암수를 생각해낸다. 하지만 그는 죄의식의 작은 물줄기가 가슴에서 스물스물 흘러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는 아무도 없는 곳에 “아, 이 죄악, 악취가 하늘까지 찌르느냐. 인류 최초의 저주를 받으셨다. 형제를 죽인 죄로! 기도도 드릴 수 없구나. 심정만은 간절한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강하나 더욱 강한 죄악에 압도당하고 압타리를 걸친 사람모양 어디부터 시작할지 망설이다가, 양쪽 다 못하고 마는 격이다. 설사 이 저주받은 손목이 형의 피로 두꺼워졌다 할지라도 하늘에는 이 손을 백설처럼 희게 씻어 줄 단비는 없을까.”

죄의 사람은 아무리 권력과 금력이 가득 하더라도 죄의 가시가 양심의 심장을 찌르는 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아무리 자신의 죄를 가리고 싶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천국에서 내려 비치는 양심의 강한 빛을 막을 수 없다. 그 빛은 가슴 속의 시커먼 치부를 드러내어 자신의 존재의 초라함을 드러내주고 만다. 그러기에 클라우디우스는 한사코 자신의 죄를 지적하려고 하는 햄릿을 제거하고 한다. 그것이 바로 그의 도덕적 한계이다. 죄나 양심은 불가시적인 내적인 영역인데, 햄릿이라는 현상적 존재를 제거함으로써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이다.

그는 입 발린 회개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죄의 무게로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그에게 기도가 나을 리 없다. 기도란 그의 양심의 문이 활짝 열려있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단지 지옥의 불이 두려워 회개는 뒤로 미룬 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클라우디우스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그는 결국 자신의 현주소를 깨닫는다. “이 말세의 타락 속에서는 범죄의 손도 황금으로 도금을 하면 정의를 밀어젓고 부정한 수단으로 얻은 바로 그 금액으로 국법을 매수하는 것 좀 식은 죽 먹기지. 하지만 이런 천상에서 통하지 않지. 글썽 흐느림 앞에서는 속임수는 통하지 않고, 최상은 그 본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최상에 대해 일일이 증거를 대며 실토할 수밖에 없으니까.”

김영호 교수는 양심선언으로 교수의 실수를 인정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곳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백하지 못하는 학교당국이나 그들의 해임을 인정하는 사법부는 클라우디우스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석공은 결코 비겁한 판사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양심의 문을 열고 두드리는 신의 소리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교육에세이 28

## 가정은 위대한 학교

-부모가 춤춰야 자녀도 춤춘다-

21세기, 정보화시대라 일컬어지는 새시대(new era)의 도래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우리에게 변화와 혁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는데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자 또한 시작은 새로운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사회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부분적일지라도 몹시 실망스럽거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주도할 한국인을 육성하려면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인 교과 관련 지식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며, 질서의식과 더불어 예의범절을 아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새삼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성교육이란 주로 심리학적 의미로, 인간의 개별적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그 특성들이 존중되며 자유롭게 개발되어 그 특성대로 사회적 조화를 이루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도덕교육에서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성교육은 도덕적 지식을 알고,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도덕적 습관을 형성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교육에 의하여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익히 아는바와 같이, 학교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인격 함양의 도장(道場)으로 점차 사회 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으로 선.후배 그리고 동급생들과 서로 협동하면서 조화의 미덕을 이루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의 질서교육이나 공동체 윤리교육을 보다 더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그리고 자주 느끼곤 합니다. 공동체에는 그 구성원들끼리 준수해야 할 일정한 규범과 행동양식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공동체 윤리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공동체 윤리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닿는 대로 전교직원들과 뜻을 하나로 모아 학생들의 사람 됨됨이 교육, 즉 인성 부분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는 한편, 학부모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시면서 특히 교육에 애정어린 관심사를 보여주시는 여러분들께 늘 가정 교육의 중요성, 즉 학교 교육 이전에 가정교육이 선행되어야 함과 동시에 아울러 학교 교육과 가정교육의 병행이 이루어질 때 우리 학생들은 바른 품성을 지닌 학생으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점을 특별히 힘주어 말씀드리곤 합니다.

또한 저는 오늘의 우리 학생들의 반듯한 모습을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의 부모님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가정 경제 활동을 위해서 매우 분주하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바쁜 중에도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자주함으로써 자녀들의 학교 생활에서의 전반적인 상황을 대화를 통해서 또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좋은 글을 남겨 주심으로써 자녀들이 단정한 모습으로, 예절바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은 인격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장(場)으로, 인간은 누구나 가정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삶의 기초적인 행동 양식을 배우고 인격을 형성해 갑니다.

부모는 자녀의 생애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선생님이므로, 자녀 교육의 1차적 책임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은 자녀들의 인격 형성과 예절 교육은 물론, 무한한 정서 세계를 창출해내는 터전이며, 정서적인 생활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정은 교육의 장(場)으로써 백지상태의 유아에게 근본적인 가치 체계를 형성해 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수시



지 정 주  
포천여자중학교 교장

로 접하게 되는 우리 학생들의 질서 의식과 행동 양식이 경우에 따라서는 참으로 우려스러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실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자세와 태도를 비롯하여 상담활동, 체육 활동을 포함하여 쉬는 시간이면 교실과 복도는 예전에 기성 세대의 모습들과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어, 한마디로 혼란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솔직히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들을 너무 쉽게 자주 마주치게 되곤 합니다.

“예절 교육은 부모의 손을 잡고 다니는 시기에 완성되어야 한다”는 말은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수범적인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저절로 몸에 익혀지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우리 자녀들이 점차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못어른에 대한 예절 교육과 공공장소에서의 기본적인 질서의식은 평소 가정에서 보여주는 부모님의 모습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절은 곧 나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절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몸과 마음과 행동을 바르게 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건전하고 건강해 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AM 에어매트

## 침대문화의 혁명! 리더 에어쿠션 매트



사옥전경



야외에서!



물놀이용으로도!



황경의 대표



### 온열 · 음전위 안마 리듬 마사지

오늘 하루의 피로를 전문안마사 같은 안마매트 위에서 **헉!** 풀어보세요.

